

警世歌



[해제]

이 가사는 한국가사문학관에 소장된 미 해제 가사로 “痛憤하다 痛憤하다 不學無識 痛忿하다” 경세가 (警世歌)에 수록된 국한문혼용 가사이다.

[원문]

警世歌

麥湖齊騰抄

五倫

三綱

警世歌

痛憤하다 痛憤하다 不學無識 痛憤하다
 天性으로 생긴 心情 物欲으로 變탄말가
 離婁가치 발근눈니 보난거시 錢穀이오
 師曠가치 聰흔귀에 듯난거시 酒色이라
 公輸가치 巧흔손에 棋博沽酒 汨沒하고
 夸父가치 걸난발로 財利도에 奔走한다
 千金가치 重흔몸이 百年못흘 人生이라
 惰其四肢 이사람아 不孝父母 大不孝
 豪俠放蕩 乱雜하야 父母貽憂 ㅎ단말가
 文章功名 富貴하야 父母榮善 못보니덜
 世上天下 万物中에 사람이 貴탄말삼
 보아서 알거이와 들어도 斟酌하리
 天地万物 化生흘제 賤흔거시 禽獸로다
 假令일너 禽獸되면 못될것도 無數도다
 麒麟이 貴긴만타 단난금싱 毛族이오
 鳳凰이 祥瑞다도 나난새 羽族니라
 痛憤하다 痛憤하다 不學無識 痛憤하다
 天性으로 생긴 心情 物欲으로 變탄말가
 離婁가치 발근눈이 보난거시 錢穀이오
 師曠가치 聰흔귀에 듯난거시 酒色이오
 公輸가치 巧흔손에 棋博沽酒 汨沒하고
 夸父가치 걸난발로 財利上에 奔走하며
 興戎出好 ㅎ난님에 言語操心 아니하네
 惰其四肢 이사람아 不孝父母 大不孝라
 千金가치 重한몸이 百年못흘 人生이라
 文章功名 富貴하야 父母榮華 못보언들

豪俠放蕩 亂雜하야 父母貽憂 하단말가
 切痛하다 切痛하다 생각하면 切痛하다
 世上天下 万物中에 사람이 貴탄말삼
 보아서 알거니와 들어도 斟酌하리
 天地万物 化生홀제 賤하거시 禽獸로다
 假令일너 禽獸되면 못될것도 無數로다
 麒麟이 貴컨만난 닷난김성 毛族이오
 鳳凰이 祥瑞라도 나난새 羽族이라
 冀北에 貴하거시 千里馬 조흔거가
 遼東貴物 자랑마소 白頭豕도 賤하도다
 旁爲鷄口 하잔말이 그아니 鄙諺닌가
 一獸走 百獸驚라 鳥之將死 其鳴哀난
 날고괴로 그췌이라 知覺업서 글어흔가
 貴하도다 貴하도다 오지사람 貴하도다
 元亨利貞 順理하고 仁義禮智 稟性하야
 三綱五倫 우리人間 萬善百行 이世上에
 귀하사람 되야나서 飽食煖衣 거동보소
 하난거시 自行自止 아난거시 如醉如狂
 良知良能 本然心乙 自暴自棄 하여가니
 近於禽獸 姑舍召 馬牛衿裾 네아니아
 사람되어 胎生하니 못날석도 하고만타
 北胡地處 生長하하 凶奴날 못면하고
 西蕃國處 生長하하 犬戎이 아조쉽고
 南蠻國處 生長하면 鵠舌荒服 될번하드
 죠흘시고 죠흘시고 우리東國 文明하니
 堯之日月 舜乾坤處 檀君故國 箕子州라
 飛禽走獸 아니되고 天賦地靈 사람되야
 南蠻北狄 아니되고 朝鮮聖世 生長하이
 三都八路 너를들에 山明水麗 萬世基라
 家給人足 太平世界 國泰民安 죠흘시고
 老而不學 저老人 擊壤歌날 몰나듯네
 立我우리 同門生아 사람될일 議論하새
 사람이 사람될일 學文밧기 다시업다
 萬古大聖 孔夫子刀 韋編三絶 하시도다
 八年治水 夏禹氏刀 寸陰是惜 하여시니
 우리가탄 新學小生 虛送歲月 하단말가
 爲先第一 못저홀일 至誠으로 奉親하식
 病則致憂 不離側 子息道理 例事로다

昏定晨省 못후에 日用三牲 虛事도다
 人間上 孝子될일 誠之一字 關重하다
 貴賤으로 할거시어 貧富으로 議論할가
 郭臣갓탄 至窮分 萬古孝子 아니닐가
 뉘라서 가라치며 어딴서 배와던가
 感天至誠 王休徵^ㅍ 일움잇난 孝子로다
 어름속에 鯉魚썩고 나난새도 막에든다
 出天之孝 董召南은 싸이업난 孝子로다
 물의들어 고기잡고 뉘의올나 누우며
 들에가서 밧슬갈고 도라와서 글을닉네
 입에맛난 飲食이어 몸에맛난 衣服等物
 썩과말을 가치하면 父母오적 便할실가
 옛사람 후던뒤로 後生刀 뵈와후새
 具慶之下 子息되야 衣不純素 후어입고
 孤哀之子 되어거든 衣不純彩 할거시라
 居家하거 쉬온일은 어버이 불으시면
 입의밥을 피야트며 손의일을 써져두고
 뒤집만 후어물고 밧비밧비 다라가서
 무삼일을 시긔시면 盡心竭力 服泛후라
 五刑之屬 三千中에 罪莫大於 不孝로다
 알어두새 알어두새 君臣有義 알어두새
 天地가탄 聖主上은 日月가치 照臨후샤
 草木가탄 元元蒼生 雨露恩澤 咸育후고
 赤子가치 사람후셔 爲民父母 후시도다
 孝可移於 事君이라 臣民道理 후긔쉽다
 노지말고 글을일거 詔令倫音 외아두고
 부질언이 밧슬가라 賦稅徭役 趁時후고
 朝家政命 是非말고 官長善惡 言論마새
 君義臣忠 大綱常 古文今文 昭詳후다
 同父母로 성권몸이 兄弟友愛 힘써보새
 形容은 分體후나 血脈인직 同氣로다
 兄의몸이 飢寒후면 아의배가 불을것가
 아의몸이 취어홀져 兄이한자 압을것가
 一斗粟 一尺布후도 난아먹고 난아입새
 行有餘力 誦詩후야 鶴鷗詩을 외아두고
 咏歌舞蹈 湛樂후야 箎도불고 埙도불새
 여러兄弟 一樹花라 紫荊花 쏘시피고
 갓치갓치 피는香氣 날날마당 春風이라

姜公兄弟 有名하다 同衾同枕 보그조코
 溫公兄弟 금직하든 無寒無飢 듯그존네
 옛사람 하던디로 우리도 하여보새
 착한일은 나나하고 그른일은 서로마새
 嚴父가치 奉養하고 嬰兒가치 保護하새
 人事上에 부딪힐일 男女有別 발겨보새
 同姓異姓 族戚間에 內外分揀 至嚴하다
 하물며 남남間에 分別업시 居生할가
 옛글에 하여시되 夫婦有別 일너더라
 二姓으로 磨鍊하야 萬福源과 生民始라
 乾坤으로 配匹되자 陰陽으로 會合하니
 言語上과 枕席間씨 褻狎하그 쉽다말고
 尊敬으로 專主하면 家道興隆 지의로다
 小禮大禮 그씩禮을 終身토록 잊지말고
 나나드나 琴瑟가치 夫婦和樂 하야셔라
 人間萬事 날날마당 夫婦間의 造端하네
 父母安寧 하시그와 兄弟和同 하느것과
 一家親戚 먼春黨이 內政으로 盛衰하네
 冀野의 밧슬가이 郤缺아이 農夫런가
 饑彼南畝 그夫人을 大賓가치 尊敬하제
 侍立不惰 其夫人을 雙手奉獻 禮貌로다
 許允之妻 院夫人은 얼글이야 엇덧던지
 士有百行 물어씬이 婦有四德 可知로다
 好色이오 不好德은 士君子의 欠事로다
 사람되그 行身할일 어른兒孩 살혀보식
 靑春少年 저사람아 白髮老人 尊敬하새
 極寒盛暑 차그답그 衣冠하그 뵈셔셔라
 바다서든 되릴지라 주시난것 식양마쇼
 훈가지로 질을갈제 압페셔셔 가지말며
 어른올삼 酬酢할제 다른말을 니지마쇼
 문난말슴 근치거든 掩口하그 對答하그
 시난신을 못밥거든 집난쥬렛 옴길것가
 操心만타 侍生덜아 간디므당 尊長이다
 老人執白 少年黑은 바돌장귀 말거시네
 인덜아이 雜拔런가 尊長어른 뵈석안자
 平坐하야 訓手하면 爭道不恭 보그시타
 立我울이 門生덜아 先生얼 尊敬하야
 長幼有序 至嚴하이 五倫中에 第四로다

年齒로 일을것기 身地로 議論할가
 年齒야 만코겨코 身地야 貴賤門에
 博聞博識 先進이오 道學理學 先覺이라
 그門下에 受業하면 이아이 先生인가
 山鷄野鷲 가탄의히 耳提面命 鮮蒙홀제
 하날천자 썩지자을 音索音을 分揀하며
 先後劃을 날너알가 손을잡고 그려주며
 魚魯之辨 雁寫字을 멋히만의 알아씨며
 詩書百家 卷卷글을 凡百人事 가라칠가
 聖澤도 만히시고 積功도 금직하다
 모로난일 못자오면 아난되로 訓戒해야
 子弟가치 引道하니 父母가치 尊敬해야
 出冊도 넘지말고 杖屨飛 迂動마쇼
 切痛하다 世上사람 先生薄待 무삼일고
 慇懃하신 情淡듯고 門外나서 是非하여
 靑出於藍 이라하고 제才操을 자랑하며
 氷出於水라 하고 先生文章 外타하네
 그先生께 글을빅와 立身揚名 하는사람
 居家의 榮親이오 憂國의 忠君이라
 그일을 矜각하면 君師父 一體로다
 스승薄待 幸여마쇼 孝子忠臣 根本이라
 巫夫樂工 賤下人도 先生弟子 나셔우나
 操心홀일 쏘아스니 벗사괴기 極難하다
 貧賤타고 버릴것가 富貴로 取치말고
 面目으로 親히하며 言語로 踈히마쇼
 年齒高下 못지말고 志氣清酌 斟酌하냐
 益者三友 부되두고 損者三友 멀이하쇼
 君子朋友 살펴보아 信義로 許心하며
 글은道理 마자하고 올은일로 責善해야
 憂樂无忘 當付하고 死生同心 盟誓하다
 淡淡하든 물가트여 맛업슨듯 하건이와
 물가튼 말근交道 百年인들 흘닐손야
 小人朋黨 도라보니 酬酢으로 許友하네
 稱兄稱弟 可憎하고 外親內疎 面面이다
 제몸이 有福하면 가난흔벗 阻面하고
 내몸이 賤케되면 貴흔벗슬 望斷하네
 小人親舊 알기쉽다 죽자사자 하논양이
 巧言令色 爲先하고 阿諛求容 第一이라

脅肩諂笑 저벗보쇼 天中有力 뉘아닌가
 술가치 만난마시 맛시아 돌건마는
 마암안에 곱분일을 親舊라고 情談하면
 利盡情疎 다른날에 大禍將至 念慮로다
 楚越가탄 肝膽으로 管鮑가치 親차한덜
 一生談笑 外面이오 千里山河 中心이라
 이벗보고 저벗害談 그사람도 버시던가
 벗시라고 親차하면 信字받기 다시업다
 옛사람 親故보쇼 理勢나 알아두새
 友也者는 友德이라 以友輔仁 하자하면
 貴호노라 挾貴하면 나만특고 挾長홀가
 官至相公 宋仲子는 貧賤之交 아지안코
 公孫杵曰 地下友는 忘年之友 두엇더라
 어지다 晏平仲 知己之友 참벗시라
 公孫杵曰 地下友는 勿頸之友 두어더라
 어지다 晏平仲 善與人交 平生이라
 久而敬之 하다하니 朋友有信 그뿐이라
 立我各姓 門人덜아 睦族홀일 드러는가
 親兄親弟 同父母로 六親九族 되여간다
 親히하면 一門이오 멀이하면 一家로다
 一門之內 一家間에 틈이업시 조세스식
 呼兄呼叔 말만말고 敦睦으로 當付하며
 冠禮昏姻 諸凡節과 喪葬祭祀 大小事에
 몸호더라 是非말고 갖가지 賻助하며
 遠近으로 厚薄업시 富貴로 溫冷마쇼
 至情之間 그릇치면 怨音나기 아조쉽다
 義理上에 損傷하면 간디마당 罪人이라
 百代之親 소姓이라 멀어간다 疎히마쇼
 凡百일에 참을인자 世業으로 傳授호쇼
 憂患疾苦 全心全力 家法으로 銘念호식
 厚히홀디 薄히하면 物有本末 글웃친다
 親히홀디 疎히하면 事有終始 못될세라
 後孫家風 和호하면 先祖魂靈 喜歡호리
 服盡호다 情疎마쇼 路上行人 못면호리
 全根의 枝枝葉葉 子孫이야 만썸니와
 先代奉祀 傳重호고 舊山守護 次知로다
 宗子宗孫 重호子孫 부디부디 후디호쇼
 壽陽張公 九世全居 멋百人이 全席하며

江州陳氏 七百宗族 代代孫이 全居하고
 九世子孫 집이업서 各居할줄 물늣스며
 七百餘人 財物업서 分財할줄 물늣슬가
 全居하는 世業이오 全席하는 家法이라
 全姓一家 諸父兄은 外政修齊 금직하다
 各姓嫂似 諸父兄은 內政睦婣 至樂하다
 사람마당 子息되고 喪葬禮節 關重하다
 昊天罔極 送終홀제 집집마당 달오도다
 古禮만 遵行하고 新法乙 너지마쇼
 艱難有餘 議論말고 稱家有無 하여서라
 怪變일네 巫覡佛事 喪家風樂 娛鬼로다
 惑世誣民 저地師야 明堂吉地 易言한다
 三年求山 十年裁穴 過期不葬 하던말가
 小大祥의 祭禮보쇼 산사람의 잔채던가
 菜果不食 하는집이 酒肉이 狼藉하고
 散齊致齊 하는날에 烹羊宰牛 豐備하다
 小心畏忌 하는밤외 言語戲謔 무삼일고
 家禮喪禮 지온뜻은 清酌庶羞 작만하여
 능의耳目 爲치말고 닉외情誠 極盡하여
 淨潔이 齊戒하고 追遠感時 奠獻로케
 禮不足은 무러하고 哀有餘는 已事로다
 一年一度 祭祀夕에 우리父母 오시로다
 질그시던 飲食이며 씨시던 盤床器皿
 左脯右醢 魚東肉西 禮法되로 陳設後에
 小心伏地 奠酌하여 不勝永慕 再三獻의
 萬年後에 가신父母 四更末의 되시도다
 人間大事 살펴보이 昏姻禮節 關重하다
 全姓不娶 하는말삼 聖賢君의 訓戒로다
 三十有室 二十嫁는 昏不失時 그씩로다
 家勢貧富 ㄷ바리고 그집家行 第一이라
 門閥도 보려니와 一人賢否 極擇하고
 窈窕淑範 內政이오 文章德行 君子로다
 男女間에 極賢하면 貧賤이 暫間이오
 사람헌나 그르치면 富貴高達 오릴것가
 昏姻論財 人心보쇼 오랑새의 道理로다
 盜跖이도 富饒하면 一妻二妾 豪強하고
 顏子라도 貧寒하면 百年鰥居 못면하네
 이러한 이世上의 擇人乙 하자하면

拊履織席 어디미요 席門繩樞 寂寞흔디
 耕田鑿井 白屋中에 哲人長者 許多호고
 織絰組紉 勤懇호여 採桑執麻 辛苦호야
 燃火汲水 寒厨下에 淑女孝婦 生長흔들
 荊山白玉 沙中金과 幽谷芳蘭 如代로다
 大凡一時 男昏女嫁 이로조차 斟酌호라
 非媒不得 흘거시이 異姓차차 結昏할제
 親戚朋友 알게호고 昭告祠堂 호는禮난
 上繼父母 天倫이오 下有子孫 人極이라
 奠鴈納幣 호는禮는 有別한뜻 厚케호고
 之子于歸 舅姑禮는 宜其家人 根本이라
 聘禮호면 안히되고 그저가면 別家로다
 構木爲巢 太古세에 伏羲氏의 뜻일야
 글자짓던 잇튼날에 紀錄흘일 만컨마는
 썩가죽을 베어니여 嫁娶禮는 문전호네
 世上일이 호고만타 接賓客의 人事로다
 닉집차차 오논손임 幸여라고 薄待호쇼
 門밖기 느셔보면 닉들아니 손일년가
 飲食이야 粥食間에 家勢되로 호려니와
 門前에 손업시면 그집掀惡 所聞이라
 知與不知 親疎間에 손마당 尊敬호셔
 出門如見 无賓禮는 平生에 잇지마쇼
 大聖周公 待士호쇼 成王叔父 武王弟라
 三吐哺三 握髮은 猶恐失之 호시도다
 寂寞흔 蓬華氏의 손이아니 반가올가
 轍環天下 孔夫子는 父母国乙 바리시고
 東西南北 손임되야 어디가니 薄待흘가
 忌客호는 俗士덜아 陳蔡大夫 되지마쇼
 一洞一里 居生호야 交隣之道 더욱쫓타
 山을싸라 사자호며 물을보고 가는것가
 盜賊올가 城府살며 虎狼저어 野村닌가
 사람이 사람씩라 묘와사자 호는뜻슨
 孝烈之行 너도호고 敦睦之風 나도호식
 山田野畝 辭讓호고 耕牛騎馬 假貸호며
 업난器皿 난아씨고 적은飲食 난아먹식
 鵠鳴狗吠 四境안에 이아니 村風닌가
 挾貴凌賤 아니호면 抑強扶弱 질로된다
 原居之家 닉라말고 寓接之人 忽待마쇼

이웃不知 허여가면 鄉黨弃人 捷徑이다
 먼春黨과 近이웃시 俚言에도 明鑑이라
 錢穀取貸 허여갈제 水九與授 가치허식
 그짐싱이 닥을물면 사람조차 틈이날가
 아히다툼 例事로다 얼운싸흠 될거신가
 藍田呂氏 鄉約말삼 집집마당 외와두새
 周禮의 鄉人刑은 사람마당 아지마새
 어진사람 이웃하면 遇化存神 허리로다
 平生立身 行己要는 自不妄語 口舌이라
 三寸舌端 그릇치면 百年身勢 坎坷로다
 제삿턱 드는독그 사람마당 다인는可
 그독그 등도든다 恒用하면 正身허새
 言語薄待 輕易마쇼 말이엇지 薄過되며
 言足飾非 쉬이마쇼 몰로엇지 飾非홀가
 空然은 一失言에 無端은 百死地라
 造言之罪 至嚴허다 守口如瓶 허여보새
 屬耳垣牆 허드허니 辟人허고 私談마쇼
 天高聽卑 허드허니 畏天허야 妄語허새
 狂談醉說 질거하면 緊은물이 實로업드
 青山流水 疊疊허는 말가는길 못욕으며
 바람구름 재드흔돌 말삼쳐로 썰이갈가
 言无足이 行千里라 無根之說 學論마셔
 春雉自鳴 訂驗이요 桑扈慎言 殷鑑아라
 非禮勿言 非禮勿聽 聖人이 날쇼길가
 言必忠信 刻骨不忘 明哲保身 하리로다
 列書別曲 다흔後에 모도닐너 議論허식
 居家修齊 못흔사람 鄉黨出入 勤懇허다
 닉몸일은 못살피고 남이是非 成實하드
 虛靈不昧 一性心 卩 하늘임이 주신주라
 늦치올고 구지가져 百年乙 修養홀져
 日月光明 불근빛슨 耳目聰明 次知허며
 四方体位 四肢되고 五行理氣 五臟이라
 春夏秋冬 侑環理는 响噓呼吸 自然氣라
 滄海一粟 土木刑骸 與天地로 三才로다
 生而知之 聞一知十 聖人은 못되나마
 作之不已 日就月將 君子는 지너하셔
 專心致知 從容허야 閑居慎獨 홀거시라
 혼자안자 혼일을 뉘라셔 알아허고

坐臥起居 常시업서 無所不爲 ㅎ다가도
 稱人中과 多士席에 掩其不善 ㅎ건막는
 貯於中者 發만外다 莫顯乎隱 절노된다
 十目所視 十手所指 眞實로 嚴ㅎ도다
 清心窒慾 힘써ㅎ시 사람欲心 無常ㅎ다
 너子息 큰일을 너斟酌乙 못ㅎ고서
 농이와 그르다면 그사삼을 怪히보며
 너곡식 되느줄을 이편이 물느보고
 慾心中에 危殆ㅎ일 色界上에 謹避ㅎ새
 伐性見之 物히ㅎ면 落賓之厄 갓갑도다
 한번失足 그릇치면 百蕃쥬거 계甘受라
 에와이게 멧사람이 平生을 그릇친가
 솟찬느 저나부야 겨우실이 禍網이라
 그실솟티 걸어면은 春興이 간디엿다
 世上사람 눈잇거든 저느부飛 못볼손야
 好色ㅎ는 그마암을 賢賢으로 易之ㅎ고
 浩蕩之物 술일년가 술먹기을 존절ㅎ새
 한잔에 醉홀진딘 두잔먹다 아쥬쉽다
 아모리 端正人도 먹에 두면 放蕩ㅎ이
 放蕩ㅎ야 醉狂되면 말이달제 擇言홀가
 먹기야 새마는 鄉飲酒禮 엇지마새
 謹原ㅎ 性情으로 凶險ㅎ類 되드말가
 亡身敗家 傾敗子飛 엇글에도 歷歷ㅎ다
 鄉曲에 자라나서 廢人前程 더우마시
 啓蟄不殺 方長不折 生生物理 天地로다
 天地人의 得罪홀일 남은ㅎ나 나느나식
 ㅎ야보시 ㅎ야보시 立志工夫 ㅎ어보시
 ㅎ야보시 ㅎ야보시 齊家工夫 ㅎ야보시
 夫夫婦婦 조심ㅎ니 宜室宜家 길겁도다
 兄兄弟弟 友愛ㅎ야 及老及幼 부디ㅎ시
 부디ㅎ시 부디ㅎ시 修身工夫 부디ㅎ시
 孝悌忠臣 어진일올 一心所記 ㅎ여두고
 正大寬平 잇지물면 百體從令 아니홀가
 아니홀가 아니홀가 接物工夫 사이홀가
 愛人敬人 專一ㅎ면 남니나는 愛敬ㅎ고
 言兒行兒 誠實ㅎ면 너니言行 농이보너
 심써보시 심써보시 安分工夫 심써보시
 貧富貴賤 天定인가 人力으로 取舍홀가

吉凶禍福 自己事라 天知神知 쇠길것가
 몰거신가 몰거신가 處世工夫 말거신가
 人間이 是非長短 不聞不睹 第一이라
 座上이 言語酬酢 如癡如聾 爲先호식
 거울인가 거울아가 옛事蹟이 거울이라
 爲先호니 爲先호니 臨財工夫 爲先호식
 非道非義 남의財物 一芥有嫌 못호논이
 勿取勿言 分明호면 百事可做 丁寧호다
 알아두시 알아두시 止傍工夫 알아두시
 誰毀誰訕 농의口舌 无怨無對 니일이라
 농이나논稱贊 稱贊호면 稱贊싣티 害談온다
 害淡온다 슬어마쇼 直木曲影 아슬쇼야
 只窓안에 一片靈臺 이집치레 華麗호다
 半畝丹田 터을열어 一貫之道 길을닷거
 三綱으로 立柱호고 五倫으로 上樑호아
 忠孝으로 門을닉고 誠敬으로 塗壁호고
 思无邪와 无不敬은 丹青으로 그려두고
 九容九思 四勿箴은 부벽書로 付쳐두고
 上樑文에호어 호어시되 보기죇코 알기쉽다
 집主人을 찾자호니 泰然天君 아니신가
 仁樞義戶 道德門에 升堂入室 뉘뉘신가
 拋樑東 万万歲에 博而愛之 謂仁이라
 仁學뜻을 살펴보니 四時에 봄이로다
 拋樑西 万万歲에 行而宜之 謂義로다
 義字뜻을 살펴보니 四端中에 羞惡로다
 拋樑南 万万歲에 揖讓進退 禮라호니
 禮字뜻을 살펴보니 四時中에 설음니라
 拋樑北 万万歲에 聰明睿智 智라호니
 智字뜻을 살펴보니 四端中에 是非로다
 拋樑中 万万歲에 誠實无爲 信이로다
 信字뜻을 살펴보니 五行中에 土아닌가
 天道之常 人牲綱은 이밖기 다시업다
 信土로 防川호야 茅塞업시 슈築後에
 九疇가차 正호法理 八卦체로 길러니여
 晝夜不撤 舌耕호야 衆善을 심어두고
 夜氣로 存養호야 마닥 마닥 萌長할제
 牛羊侵犯 制去호며 斧斤剪伐 禁止호고
 심은뿌리 붓도도아 여러가지 썰더나셔

天道로는 소지피고 人道로는 열의의자
 如琢如磨 익어가니 无西之宝 그열기는
 求道하면 君子되고 放失하면 小人니라
 이밭시 뉘밭신가 사람마당 主人이라
 그열의 뉘것신가 심어두면 닉것시라
 닉것시로 심어두면 놀놀마당 豊年이라
 우리가튼 어린스름 못홀네라 테저두면
 道는절노 머러가고 그를일만 차자주면
 人面獸心 네아닌야 이도롭고 不祥하다
 우라몸이 病도만ㅌ 喜怒哀樂 重病니리
 禮義廉耻 文武湯은 除惡清心 良藥이라
 志師氣卒 防意城은 防賊禦冠 良藥이라
 하그쉽고 어려운것 衣服飲食 節次로다
 食無求飽 銘心하시 飲食之人 賤호도다
 衣服不衷 任意마쇼 央皮其身 하리로다
 惡衣惡食 실어마쇼 愧天忤人 아니로다
 乘肥馬衣 輕裘는 意氣揚揚 한다마는
 도로여 識者非는 先師의 遺訓이라
 一簞食 一瓢飲은 君子가난 그러호시
 三月不違 陋巷속에 不改其樂 호시도다
 宅不處仁 홀거신가 衣之食之 念慮마쇼
 顔子の 밥을먹고 曾子の 웃입외면
 蠻貊의 居生호돌 이아니 賢哲인가
 盜跖의 밥을먹고 陽虎의 웃입외면
 鄒魯의 世族년돌 이아니 狂猾인가
 한몸으로 하여갈일 그딴록 無數호가
 父生母育 莫大恩을 万의하느 감썩늘 쇼야
 恩惠는 갑자호면 昊天이 가이업다
 身體髮膚 식친몸니 履薄臨深 戰兢호야
 出人場과 言語上의 操心호면 孝子되리
 손한번 놀일적의 발한반 거러갈제
 한씨라도 잊지말면 子息道理 當然호다
 臣下되고 不忠호면 伏節死義 속절업다
 戰陳无勇 호는거시 忠誠업신 타시로다
 夫婦間의 无別호면 家道敗亡 暫間이라
 朋友間의 信업시면 가딴마당 取笑로다
 온갓道理 아자호면 글을일거 講究호쇼
 小學에 몬자들어 幼儀飛 비와셔라

八九歲 되야갈세 洒掃應對 아라두식
 愛親敬長 隆師親友 니집일로 力行하고
 大學或問 次次일거 三綱領과 八條目을
 仔詳히 講究하고 究 入德門에 드러가라
 論語에 敦仁博義 融會貫通 하고야두고
 孟子에 過欲存理 熟讀詳咏 擴充하고
 中庸草卷 子思말씀 天地之道 人道로되
 性情之德 位育之妙 곳곳 講磨하고
 毛詩十卷 風雅頌乙 朝益暮習 精히일거
 性情邪亡 善惡褒戒 感發懲創 工夫로다
 그직자로 禮記일거 天理節文 詳玩하고서
 尙書十卷 上下經을 學而習之 길겁도다
 二帝三王 大經大法 載在方冊 明鑑이리
 周易經傳 講習하라 天尊地卑 理氣로다
 吉凶存亡 進退理와 動靜消息 陰陽卦라
 微辭奧志 玩味하고 부즐언이 通達하야
 賞善罰惡 聖人心法 春秋書飛 博覽하고
 朱子大全 性理說과 家禮心經 近思錄과
 二程全書 卷卷冊을 常常히 間斷업시
 疑心업시 通達하면 日用工夫 事業이라
 史略通鑑 綱目歷代 博覽으로 披閱하고
 老莊雜 不正書飛 暫時라도 着眼마쇼
 居家에 일글글은 喪禮儀禮 그뿐이리
 葬前에 飛喪禮일거 送終之節 向方알고
 墓後에 飛祭禮일거 奠酌之節 極盡하고쇼
 어하 니일이야 燈下不明 自嘆이다
 말하느 南星이五 無尾하 東庚니라
 눈뭇보는 저판슈야 저죽을날 모르면서
 무삼일을 아로라고 남니身數 가려주며
 全身下收 안진방이 坐地不遷 하면서도
 임만사람 하느말아 千里걸을 갓감두고
 나느그리 못하면서 일헌말이 罪만하中
 日後애 聖人만나 狂夫之言 擇之홀가

河陽別蘇武序賦

邊風急塞雲深水聲咽日色沈河陽道上去者留
 者不忍去不忍送一曲歌千行淚蘓君李君子卿少

卿今胡地之二囚昔漢家之兩臣一則五千深入垂翅
 爲俘一則十九年持節皓首未歸窮魚照沫羈鳥
 相依情同岱馬之北嘶怨入楚囚之南音拔劍擊
 柱情注王門關東[∞]雪與瓊魂飛五雲多處歸心
 朝外一片死亡今日明日瞻望日而相怨向翔風而
 對泣豈知白鴈南飛上林秋色祇有乳日九天恩
 光居者難行行者難住離亭落日遠于將之班荊
 贈別多少離恨李君於是執爵而泣曰嗟呼子卿我
 寧不悲步卒一隊秋蓮三尺雷霆白日血戰万里盖
 欲胡地無人漢道昌天子千秋万歲當年此心豈爲身
 謀所聽忠者公耳國耳兵弱虜强蟻子無援矢窮
 食盡賊臣誨盜嗟呼子卿命也何如虛死無益減
 名非計暫屈節蠹爾其志將以有爲子知陵心
 陵豈偷豈天日不照余忠誠法吏又弄其刀筆
 痛老母之非命慘妻孥之無辜人間地下爲怨誰勝于時子
 卿亦在海上兩箇孤臣一般心思相逢握手恍若夢寐嗟呼
 子卿我寧不悲奔意無歸在子難忍異地相逢於我何
 年風悽月白之夜說盡往事而舒悲天陰雨濕之夕共引壺
 觴之遣懷侏儻左離之類難與邇辭與子談笑以寫殷憂
 襟侏異方之呆不足爲歡与子悲歌以洩湮鬱昔之相逢不
 幸而幸今之昔別幸而不幸嗟呼子卿我寧不悲出乎黃泉
 之下入乎青雲之上時乎時乎蘇君之時已矣已矣陵獨奈何子歸
 故國復見天顏我留殊方又失良友以子言之死日生年以我言
 之出生死入呆莫呆兮子行悲莫悲兮我留嗟呼子卿子想
 陵心暮春三月斷鴈流哀高秋八月牧馬悲嘶此時無君誰
 與開襟薄暮心動昧朝神興雙鳧未歸四面胡笳此時無
 君誰與寬心瀚海嚴霜玄冰裂陰山雪積百草折我無我友
 我懷誰知嗟呼子卿我寧不悲我身未死我心已死子身可別
 子心難別生別死別古有今有此日此別非死非生嗟呼子卿我
 寧不悲子留別我我送別子別雖一緒恨有淺深征鞭欲
 興子尚依然別袂將分我何爲心嗟呼子卿我寧不
 悲秦吳少別燕宋暫遊惘惘刺心猶有可憐况我與子
 生死辭矣陵獨何心能不嗚咽嗟呼子卿夫復何言
 征驂按轡落日西匿子裾誰摻子車誰係歸乎歸乎勉事
 聖君努力自愛時惠德音故人之子卽吾子也胤子無恙
 可慰相思遂更進一盃酒作河陽之曲其詞曰河陽之上有
 鳥翩翩鳥能高飛與子歸兮河陽之水有魚喁喁魚
 有自樂吾不如兮蘇君亦舉酒勸陵泣而和河陽之曲其

詞曰河陽正月長明河梁之下水長流我心思子請質
明月子兮忘我有如流水歌罷命僕夫而就駕見行基
之時起瞻望不及佇立以立至今河上斷雨疏雲此可謂
妙音也

蘇應天默默翁序

天何言哉地何言哉問日而不應問月而不答歌於山山不
歌咏於水水不咏山何默默水何默默花笑不聞其聲鳥啼不
聞其音花何默默鳥何默默嗚呼默默天地覆載我一身則
我何不默默手默默日月照臨我身則我何不默默手吾
便是花鳥之于友則花鳥之默默即吾之默默然則吾之
默默得於天地之默默兼日月之默默兼江山之默默兼花
鳥之默默一動一靜一語一默何莫非默默中來耶何哉
吾之性天也吾之心理也至隱至微無形色之可見至精至
妙無聲音之可聞則此非性之默默心之默默者耶吾之質
鈍矣吾之才薄矣琢麤石而不成宝器磨鉛刀而不成利
鋒則此非質之默默才之默默者耶於禮默默何用手玉帛
之交錯於樂默默何順手鍾鼓之鏗鏘默默於詩故詩成
而鬼神不傳默默於筆故筆落而風雨不驚且夫義皇
枕上彈無絃之琴琴亦默默也道人席上橫無孔之笛笛亦
默默也一巷蓬華而無車馬之喧嘩是吾車之默默也百
結鶉衣不侈佩玉之球璣是吾服之默默也邯鄲之夢得
之何喜塞翁之馬失之何愠吾已默於得失之場鶴頭之長
短之何益鴨脰之短續之何補吾已默於長短之地也湖
上觀魚衣知我之默默我不知魚之默默魚與我俱是默
默底物也天外觀鳶示知我之默默我不知鳶之默默鳶
與我俱是默默底物也日照筠窓枕古書而卧睡睡亦
默默也春備糟邱引白酒而大醉醉亦默默也鷺不浴白鳥
不染黑白曰黑無以太煩乎可以默默不辨矣甲者
其是乙者其非曰是曰非曰無己太過乎可以默默不
論矣生於默默老於默默是何一身之默默者多耶悠然
鶴髮默然而坐疽然鶴骨默然而行同室之人稱之以
默默翁同里之人呼之以默默翁

上清陰金先生

乙酉五月二十二日恩澤宋時烈謹齊沐裁書請納再
拜之禮于清陰老先生座下小生今去懸弧之歲州
有九矣自省事以來竊聽於輿人走卒之口則皆曰今

曰山斗之望惟有清陰大爺也然而生長東南足跡罕出于庭除之外雖一鄉之士尙不得友况敢望供灑掃於門下以承大爐鞴之造化則每誦陳了翁責沈之章而自歎曰士之爲仁雖在於我而不可而他求然豈不曰事其大夫之賢者乎雖世後千載地距万里猶可以尙福而神会今幸生並一世居不越國而好天尙德之心出於秉彝而不可泯則窃庶幾賴天之靈萬一有以卒償其平生之至願曩者忽聞先生有萬里之行則又愕然自失以爲知之於聖賢雖曰有性而其所謂命者亦出於天而不能變則孟子之言幾有所不可者而吾生之不幸抑無終不遇於盛德之君子哉然自是以先生聲名日益高道義日益隆八紀賴以植斯文賴以存日月不足明而泰山不足高則不知澹庵文山竟如何而吳澄許衡之徒以仗自名者又不趨如黃鵠壤虫之相近則小生之所以日夜北望而馳義者又万倍於前日而不能以自解矣及今無事東還則又知天之所以生德者雖匡人桓魋終不奈何而日月所照霜露所墜凡有血氣者孰不欲執策奉轡以趁下風哉

尤庵札

山人無長物只溪山静寂之趣堪與人誇大今爲軒冕人所兼有山人可謂無色矣亦獨不幸或翊或進迨無虛歲自高卧深林姓名只與麋鹿知者觀之豈不迥然而笑耶

第有一好事可相以況者有鳥在林見衆鳥投羅眈視嘲笑無何渠忽見羈而前者獲脫歸林反笑不已不知何處有雲間逸翮俯視而並以而並以

與李士[○]

所示亭榭恨不得一往而遊賞焉未知名云何若不能鞠躬盡瘁蘓民活困則其欲窮勝事而樂清歡有不可得矣豈若此小溪可以捧飲而掩飢世好咲攘夷尊周之說問之溪山而溪山不笑故問諸都喻吁咈之大人君子也之兄又所攘與若人然則此物將爲無用之空言矣而孔子真爲無益之事可落一大也

宜人李氏墓表

李氏系出江陽直長問之女奉常寺正伴之孫領議

政平壤君朴居菴之外孫適直長郭永之子通贊繼儀
來居二嘉生二女長適慎汝修次適宋世勳享年八十
二有其壽而無子大其家而不其位惜哉

淑人南氏墓表

夫人之承家也牧使公之承蠱也夫人爲助風自大出夫
夫婦婦其存也髦幼恬特饗祝誠帖其亾世宗族皇皇
閭閻洛洛斯豈聲言笑貌之沂加賔曲於維嘉維則
之故婦人無所輔仁而慈惠温良乃如此斯固女君
子矣其子汝誠三及門注叩清以先妣之跡榮一字植
於先君友也其敢泯齊夫人姓南氏系于宜字皇考諱
廷召宣務郎宣務之妣曰竹溪節婦安氏府使璋之女
文成公珣之十世孫也斷髮截耳納諸移天之櫬圖像
形幀又盡考妣像朝夕親奠朔望則并祭内外三代
王又諱琦宗簿寺僉正曾王父諱致和知義盈庫
事乃高麗門下府事乙珍之孫府事見麗氏將亡
弃官歸州庄以終夫人玉色汎質克順雖其天質之
美鷺之白烏之黔盖亦生有所種矣適參議辛公
諱弼周之子牧使諱崙牧使系出靈山曾王父
節度使諱淑晴王父黃州判官諱秀武玄祖斯藏爲判
書高祖劑爲郡事夫人配君子三十年而無違德先
公十年而逝享年四十有四有二子一曰汝謹聚生員郭
之元女生一男贅汝誠娶經歷張世沈之女生一男胤女嫁
自成陳瓘子裕慶牧使公自結髮至易簣無傷人害物
之心夫人自升堂至辭室未嘗有訛詈勃谿之聲冥其
天錫祚胤駭子蘭孫苾葛不已意者斯門之慶其未
艾也遂爲銘冥城四姓魯猶三宗南沈爲太源遠其從竹
溪遺節六月隕霜爰有令孫蘭玉其相結縵辛門九其
十章夫人夙興載斐載將昏鏡初分曉星零落裕蠱
一室回窩雙鶴女則猶存世有孟光汗青無籍篆石流芳

恭人牟氏之墓

晋之有毛氏今也咸平其古也夫人之考進士毛君秀
阡爲左司諫恂之胄夫人之妣金氏三軍都摠制宗行之
女夫人之夫崔君潤屋爲郡守以湜之子也夫人生一
女而崔君卽世女適進士瑞鵬瑞鵬篤孝稱不祿早世有
子孫白冰白渠夫人之葬也白冰謁余曰外氏名大家家
不守箕裘夫人有女則女不出閨闈吾不能繼其緒并

不忍埋其行請以行之樹請五服之口者銘之九原之石
可乎余則拜手曰人必有親親必死葬人可侮也葬不
可慢也人可葬也善不可埋也吾敢表諸銘曰派則同
水百川雖異則水善者天守萬古雖長則守 朝鮮國 南冥兄記

處士申君墓表

吾維後死朋友先焉三足去而東洲黃江隨之聽松又
繼之天佑愚翁之塋吾既執其鞫而銘其石子敬仲王
之亡其家人應亦以植爲知己將必以表求數家子弟
皆未曉父兄之意強以其所不忍者索焉瀝血爲辭
寧非毒耶今有子誠之子有安復以其碣來余忍
爲之耶公諱季誠字子誠享年六十有四嘉靖壬
戌塋于密城之東村長善里申氏系出平山鼻
祖崇謙爲麗祖元勳衣冠兩朝赫世彌盛者近一
千年嘉善大夫同知中謫贈左議政自守乃君之高
祖也曾王父允元通訓大夫軍資監正王父豕濟生員
未立而夭考倬早風眩不顯娶府君孫永裕之孫筍
茂之女生公公娶察訪李鉄壽之女生二男一女女
適士人曾夢士夢士有應仁女適生員金聃壽次女
適忠順衛尹渴臣三女幼長子有定篤學不倦
早世娶進士李遠之女生一男一女曰忠後女適生
員宋維敬次子有安娶習讀柳沂源之女生四
子忠敬謹忠厚忠任公以學問操身始終不渝而
無競維人繩墨齊家表收一鄉而人莫敢間焉嗚呼
不亡者雖存而其亡者已亡今日之子誠明日健仲
言尙有枝葉乎忽投筆一噓銘曰吾黨有人申
君爲取齊莊於內冰蘖其外私淑諸人松堂之門
雖家食吉遺香之聞皇明嘉靖甲子南冥曹植
撰

본 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